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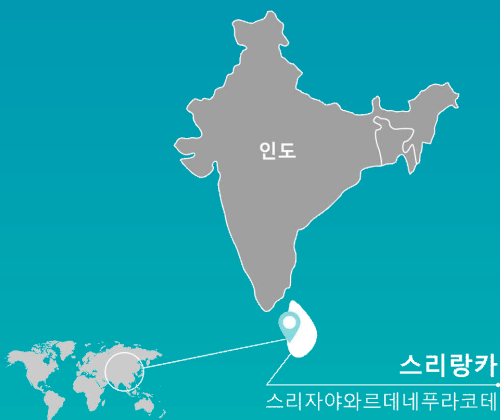
스리랑카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2019년12월18일 | 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66천 km ² 	인구 2,193만 명 (2019 ^f)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독자적 실리노선 
GDP 866억 달러 (2019 ^f) 	1인당GDP 3,947달러 (2019 ^f) 	통화단위 Sri Lanka Rupee(SLR) 	환율(U\$기준) 178.8 (2019 ^f) 

- 스리랑카는 인도 남동부 인도양에 위치한 도서국으로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2/7 수준임. 2018년 기준 인구는 약 2,169만 명이며, 싱할리족(75%), 타밀족(11%), 무어인(9%)으로 구성되어 있음.
- 청정해안, 열대성 기후에 따라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으며,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인도양 관문에 위치한 지정학적 이점으로 물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함.
- 스리랑카 경제는 2009년 내전 종식 후 2010~16년 간 연평균 6.2%의 높은 성장을 시현하였으나, 2018년에는 4분기 발생한 헌정 위기 등으로 17년 만의 최저 수준인 3.2% 성장에 그쳤으며 2019년은 부활절 테러에 따른 관광 부문 위축 등으로 2.7%의 낮은 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 2018년 공적채무는 GDP의 90%, 외채는 GDP의 59%로 국가부채가 높은 수준이나 외환보유액은 채무 규모 대비 낮은 수준(단기외채잔액의 79%)이며, 외채상환능력은 외부변수(환율 변동, 리파이낸싱)에 취약한 상태임.
- 스리랑카인민전선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부활절 테러 이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11월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현재 의회는 통합국민당이 이끄는 연합정당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선 결과(2020년 3월 예정)에 따라 신 정권의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됨.
-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 4월 발생한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로 종교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됨.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77. 11. 14 수교 (북한과는 1970. 6. 25 수교)

주요협정 항공협정('78), 투자증진·보호협정('80), 무역협정('84), 이중과세방지협약('86), 과학·기술협력협정('94),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5), 무상원조협정('09), 문화·예술·교육·청소년·체육협력협정('19)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275,512	286,837	281,699	편직물, 석유제품, 합성고무
수 입	88,544	84,135	87,757	의류, 식물성재료, 기타비금속광물

해외직접투자현황('19.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186건, 182,323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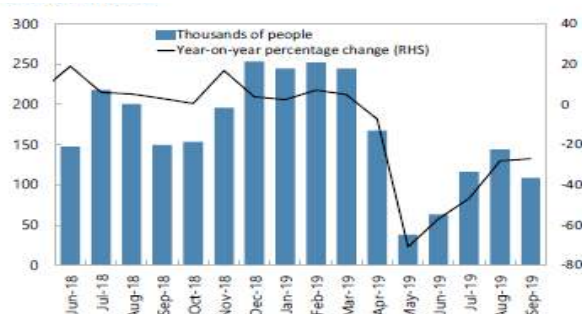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제성장률	5.0	4.5	3.4	3.2	2.7
소비자물가상승률	2.2	4.0	6.6	4.3	4.1
재정수지/GDP	-7.0	-5.3	-5.5	-5.3	-5.7

자료: IMF, EIU

2019년 경제성장률은 관광 부문의 위축에 따라 연초 예상보다 낮은 2.7%로 전망

- 스리랑카 경제는 2009년 내전 종식 후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관광 부문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10~16년 간 연평균 6.2%의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17년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를 돌파하였음.
- 그러나 2018년에는 4분기에 발생한 헌정 위기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17년 만의 최저 수준인 3.2%를 기록하였음.
- 2019년 1분기에는 경기가 회복세를 보였으나, 4월 부활절 테러 이후 GDP의 약 23%를 차지하는 관광 및 관련 산업 부문(숙박, 운송, 도소매 무역)이 크게 위축되고 투자가 감소하여 2019년 경제성장률은 연초 전망치인 3.5%에서 하향 조정된 2.7%로 전망됨(IMF 2.7%, EIU 2.5%, IHS 2.7%).
- 2018년 관광객 수는 230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GDP의 5%인 약 44억 달러의 외화수입을 창출하였음. 정부는 당초 2019년 예상 관광객 수를 전년대비 7% 증가한 250만 명으로 전망하였으나, 부활절 테러로 관광 부문이 크게 위축되어 1~9월 관광객 수는 전년동월 대비 20% 감소하였음.
- 중앙은행은 관광 및 투자의 침체에 따라 위축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5월에 이어 8월 기준 금리를 0.5% 인하(현재 7.0%)하였으며, 재무부는 2020년까지 관광 부문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2020년 3월까지 관광 부문 관련 부가가치세율을 15%에서 7%로 임시로 낮추고 비자 발급 조건 완화, 항공 수수료 인하 등의 정책을 펼침.

<월별 관광객 유입 추이>



자료: IMF.

<관광객 수 및 관광수입 추이>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2018~19년 4% 수준의 소비자물가관리에 역점

- 2018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3%로 전년에 비해 둔화되었으며, 2019년에는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응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및 양호한 기후 조건에 따른 농산물 수확량 회복으로 4.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IMF와 기술협력을 통해 제정을 추진 중인 중앙은행법이 1949년부터 시행된 통화법(Monetary Law Act)을 대체하고 신축적 물가안정 목표제 도입의 법적·제도적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 중앙은행법의 기본 목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며, 목표 물가 수준은 재무부의 검토 하에 3년마다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방침으로 함.

만성적인 쌍둥이(재정·경상수지) 적자 및 과도한 공적채무에 따른 채무상환부담 가중

- 2018년 공적채무는 GDP의 90% 수준으로 신흥국 중앙값(원유수출국 제외)인 53%를 크게 상회하며, 채무상환 부담뿐 아니라 재정적자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만성적인 쌍둥이 적자 구조(2018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5.3%, 경상수지 적자 3.2%)는 공적채무 상환의 잠재요인임.
- 이와 관련하여 스리랑카 정부는 IMF의 확대금융(Extended Fund Facility: EFF)*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 중으로, 세수 증대를 위해 부가세 인상(11% → 15%), 면세품목 축소, 조세법 개정을 완료하였고 국영기업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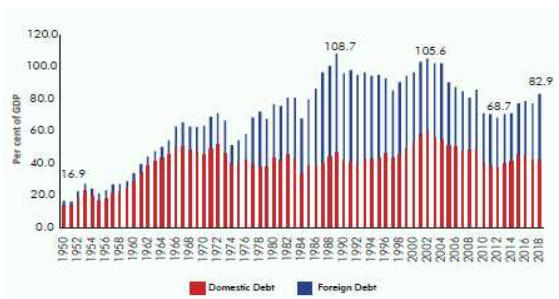
* IMF는 2016년에 15.1억 달러 규모의 EFF를 승인하였으며 2020년 6월 만기 예정임(만기 1년 연장).

- 그러나 11월 출범한 라자파사 정권은 감세(부가가치세율 15% → 8%로 조정 등) 등 재정건전화 방안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 감세정책으로 재정건전성이 다시 악화되는 등 2020년으로 예정된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 목표 달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며,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우려됨.

< IMF 프로그램 목표 대비 2019년 예상 달성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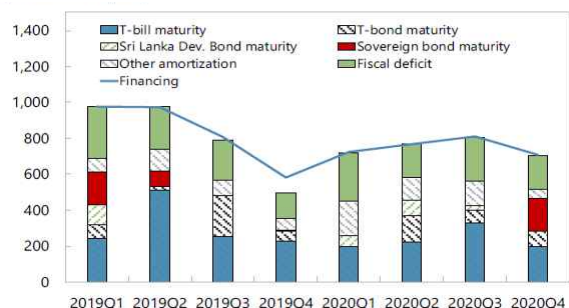
구분	재정수지 적자/GDP	조세수입/GDP	공적채무/GDP	외환보유액/평균수입액
목표('20년말 기준)	-3.5%	15.0%	68.0%	5.0개월
2019년 예상치	-5.7%	11.4%	89.9%	2.9개월

<1950~2018년 간 GDP 대비 부채비율 증가 추이>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2019~20년 재정조달 필요자금>



자료: IMF.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 상 수 지	-1,883	-1,742	-2,309	-2,814	-1,329
경상수지/GDP	-2.3	-2.1	-2.6	-3.2	-1.5
상 품 수 지	-8,388	-8,873	-9,619	-10,343	-7,310
상 품 수 출	10,547	10,310	11,360	11,890	12,044
상 품 수 입	18,935	19,183	20,980	22,233	19,354
외 환 보 유 액	6,470	5,122	6,958	6,032	6,527
총 외 채	43,925	46,400	50,600	52,300	56,200
총외채잔액/GDP	54.5	56.3	57.5	58.8	64.9
D.S.R.	14.7	15.7	15.8	21.8	21.5

자료: IMF, EIU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구조로 경상수지 적자 지속 예상

- 2018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입이 자동차, 금, 연료 등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약 7.5% 증가함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21.9% 증가한 -28.4억 달러의 적자(GDP의 -3.2%)를 기록하였음.
- 2019년 경상수지는 국제 유가 안정, 수입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등으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감소하여 GDP의 -1.5%인 -13.3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현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부활절 테러에 따른 관광 부문 수요 감소,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2019년 총수출 증가율은 -3.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스리랑카의 최대 외화취득원은 해외취업자 송금으로, 2018년 70.2억 달러로 전년대비 소폭(-2.1%) 감소함. 이는 스리랑카 정부의 미숙련 노동자(특히 가사도우미)의 해외취업 억제 정책과 중동국가의 경기 침체에 따른 스리랑카 출신 노동 수요 감소에 기인함(2018년 기준 외화취득원 2위는 의류 수출, 3위는 관광수입으로 각각 53.2억 달러, 43.8억 달러임).
-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원인이며, 이미 과도한 외채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임.

외채상환능력

과도한 외채규모에 따른 높은 외채 상환부담 지속

- 프로젝트론 대출 상환, FDI 자금 유출(채무형 부채 증가에 기인), 경상수지 적자 보전 등에 따라 2018년 총외채는 전년대비 3.4% 증가한 523억 달러(GDP의 58.8%)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전년대비 7.5% 증가한 562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채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IMF·세계은행의 외채지속가능성 평가보고서 내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외채 관련 하방위험(재정건전화 달성 부진, 우발부채 발생 등)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환율 변동 및 만기연장 위험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루피화 가치 30% 하락 시, GDP 대비 총외채 비중이 2024년 약 8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환율 변동(특히 외채의 66%를 차지하는 미 달러 환율)에 민감함.
 -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 속에서 안전자산인 미 달러화 자산으로의 자본 이동과 채무상환을 위한 외화 유출은 루피화 가치 절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2021년까지 대규모의 외채상환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축소되고 투자자 신뢰가 하락할 경우, 리파이낸싱 또는 만기연장 실패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2019년 외채상환액은 국제채 발행(3월 24억 달러, 6월 20억 달러)을 통해 전액 조달되었으며, 2020년 상환예정금액에 대한 자금 조달원도 현재 사전* 물색 중임.
- * 2018년 3월 제정된 채무적극관리법(Active Liability Management)에 의거,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은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차입할 수 있게 됨.

외채규모에 비해 낮은 외환보유액 규모로 대외지급능력 취약

- 2018년 외환보유액은 60.3억 달러로 월평균수입액의 2.5개월분이며,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잔액은 126.6%,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1.8%로 2016~17년 15% 수준에서 상승함에 따라 대외지급능력이 상당히 취약한 수준임.
- 과도한 외채규모에 비해 적은 외환보유액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부충격으로 인한 외채상환능력의 악화를 초래하므로, 외부충격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외환보유액 확충 노력이 긴요한 것으로 보임.

구조적취약성

저부가가치 제품 수출·고부가가치 제품 수입에 따른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 구조

- 2017년 기준 스리랑카 경제는 서비스업(61.7%), 제조업(30.5%), 농업(7.8%)으로 구성되어 있음.
- 스리랑카 인구는 약 2,200만 명(2019년 추정)으로 내수 시장이 크지 않으며, 제조업 발전 수준이 낮아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에 주력하여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보임.
- 수출입품목의 부가가치 수준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품은 의류, 차, 향신료 등 저부가가치 상품인 반면, 주요 수입품은 석유, 기계 및 운송장비 등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수출입품목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상품수지 적자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님.

<2018년 스리랑카의 주요 수출입 품목>

구 분		주 요 품 목
수출	농산물 (21.7%)	차(12.0%), 향신료(3.0%), 코코넛(2.6%), 해산물(2.2%)
	공산물 (77.9%)	직물·의류(44.7%), 고무제품(7.4%), 석유제품(5.2%), 식료품·담배(3.9%)
	광 물 (0.3%)	-
	미분류 (0.1%)	-
수입	소비재 (22.4%)	식료품(7.2%), 자동차(7.1%), 의약품(2.4%), 의류·액세서리(1.4%)
	중간재 (56.2%)	연료(18.7%), 직물(12.9%), 화학제품(4.1%), 보석류(2.6%)
	투자재 (21.1%)	기계류(11.2%), 건축자재(6.9%), 운송장비(3.0%)
	미분류 (0.3%)	-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2018년 기준 추정치이며 %는 각각 수출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스리랑카의 연도별 수출·수입·상품수지 추이>



자료: 스리랑카 중앙은행.

성장잠재력

동서양을 잇는 물류 허브로의 발전 가능성 잠재

- 스리랑카는 태평양에서 인도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동서양 항해의 중간기착지일 뿐 아니라 남아시아·중동·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음.
- 인도양은 세계 석유의 70%가 이동하는 에너지 수송로이자 컨테이너 화물의 절반 이상이 지나가는 국제 물류운송의 중심지로, 스리랑카는 물류 허브로서의 지정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열악한 인프라로 인해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였음.
- 한편, 중국은 아시아유럽·아프리카를 잇는 육·해상의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구축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추진, 참여국들과의 동반성장을 이룩하는 개방형 협력 플랫폼임을 주장하며 주변국들의 협력을 촉구하였음.
- 스리랑카는 해상 실크로드의 핵심 거점항구로의 함반토타 항 개발 참여를 결정하고, 중국의 차관 및 기술원조를 통해 항만 완공 후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낮은 가동률에 따른 적자 누적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졌음.
- 정부는 2016년 함반토타 항구 지분 80%를 중국 국영 항만기업인 자오상취에 매각하고 항구 운영권을 99년 간 중국에 이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스리랑카 내 강한 반대 여론으로 2017년 7월 양국은 합작 법인을 설립하되, 함반토타 항구의 중국 지분 비율을 70%로 낮추고 99년 간 임대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됨.
- '빛 외교'라 불리며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와 현지의 반감이 높은 상황에서 12월 1일 스리랑카와 중국 정부는 함반토타 항만 임대기간과 관련 사항에 대해 재협상하기로 함.
- 한편, 함반토타 항 개발은 동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외국인투자 유입을 촉진하여 스리랑카 경제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됨.
- 2019년 3월에는 오만 정부와 싱가포르 소재 기업(Silver Park International Private Limited*)이 참여하는 38.5억 달러 규모의 함반토타 내 정유소 건설사업이 착수되었으며, 10월에는 스리랑카 정부가 싱가포르계 기업(Sugih Energy International)의 200억 달러 규모 정유소 건설사업을 승인하였음.

* Silver Park International의 실소유자는 인도기업인 어코드그룹임

정부의 외국인 투자 유치에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세계은행의 2019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에서 스리랑카는 190개국 중 평균 수준인 99위를 달성하였으나, 소수투자자 보호(28위)와 건축인허가(66위) 부문은 상위권을 기록함.
- * 연도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 : 2017년 111위 → 2018년 100위 → 2019년 99위
- 스리랑카 정부는 일부 산업에 대한 외국인 단독투자 허용, 법인세 면세기간 부여, 설비재 및 원·부자재의 수입관세 면제, 투자보호협정 체결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음.
- 서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교육수준(중등교육 취학률 98%, 2017년 기준)을 자랑하는 노동력을 비교적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이는 단순저임 생산직에 국한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경쟁력 있는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지 고급인력 육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정책성과

중상위소득국으로의 진입을 위한 VISION 2025 시행

- 스리랑카 정부는 2025년까지 중상위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2015년 중장기 경제개발전략인 'VISION 2025'을 수립하였음. 세부 목표로는 연간 1인당 GDP 5,000달러 달성, 100만 개의 일자리 창출, 연 50억 달러 규모의 FDI 유치, 연간 200억 달러의 수출실적 달성을 설정함.
- 특히, 지식경제 기반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을 추구하며, 재정 건전성 제고 · 물가 안정화 · 탄력적 환율제도 도입을 핵심과제로 삼음.
-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 측면에서는 간접세에 편중된 비중을 개선하고(간접세:직접세 비율을 현재의 8:2에서 6:4로 개선), 세출 측면에서는 정부지출 관리 강화, SOEs 개편, 정부부채 관리 전략 수립(2020년까지 GDP 대비 비중을 70%로 감축), 공공투자 프로그램(2017~20년)상 사업별 우선순위 설정 등을 추진 중임.
- 한편, FDI는 내수시장이 협소한 스리랑카에서 중요한 재원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기업경영여건 종합 순위 70위 진입을 목표로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있음.
- 조세법 개정(2018년 4월 발효) 등의 노력으로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가 110위(비전 수립 당시)에서 99위(2019년)로 상승하는 등, 정책의 효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토지제도 개편, 노동·자본시장 개혁, 사회(교육, 보건) 및 인프라 투자, 디지털 산업 육성, 사회 보장제도 정비, 농업 지원, 거버넌스 개선 등 전방위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정치동향

2018년 4분기에 발생한 헌정 위기는 위크레메싱게(UNP 소속) 총리의 복귀로 일단락

- 2018년 2월 지방선거에서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이 소속된 스리랑카인민전선(SLPP)*이 압승하며 입증된 라자팍사의 국민지지도 회복, 통합국민당(UNP)과의 연합정부** 내 불협화음, 시리세나 대통령 암살 음모에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가 연루되었다는 혐의 등의 이유로 시리세나 대통령은 2018년 10월 26일 위크레메싱게 총리를 해임하고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을 신임 총리로 임명하였음.
- * SLPP는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친동생인 바질 라자팍사 전 경제개발부 장관과 전 대통령 지지세력이 '16년 창당한 정당이며, 라자팍사 전 대통령의 현 소속 정당은 스리랑카자유당(SLFP)임.
- ** 2015년 8월 총선에서 시리세나 대통령이 속한 SLPP가 의석 과반수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SLFP 주도의 연합정당인 통합국민자유연합(UPFA)은 親시리세나계를 중심으로 2015년 9월 위크레메싱게 총리 소속 UNP와 연합여당을 구성함.
- UNP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총리 해임 및 신임 총리 임명은 불법이자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러한 의회 주장에 대해 의회 해산 선언(11월 9일)으로 대응하였음. 이후 스리랑카 대법원은 대통령의 의회 해산 조치 효력을 보류한다고 판결(11월 13일)하였고, 의회는 두 차례에 걸쳐 라자팍사 불신임을 통과시키는 한편, 위크레메싱게 전 총리의 총리 신임안을 가결시킴.
- 12월 13일 대법원이 대통령의 의회 해산을 위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위크레메싱게가 총리로 복귀함으로써 헌정 위기는 2018년 말에 마무리되었음.

2019년 11월, 고타바야 라자팍사(SLPP 소속) 대통령 당선으로 정권 안정 시도

- 2019년 11월 제7대 대통령으로 SLPP의 고타바야 라자팍사(70) 전 국방부 차관이 취임하였으며, 그의 형인 마힌다 라자팍사 전 대통령은 제24대 총리로 취임하며 "스트롱맨 형제" 체제를 구축함.
- 스리랑카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계 싱할라족 출신인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한 D.A. 라자팍사의 아들이자 마힌다 전 대통령(2005~15년)의 동생으로, 마힌다 재임 시절 철권 통치를 주도하였던 인물임.
- 26년 간 계속되어 온 내전의 종식(2009년)에 대한 업적을 인정받은 고타바야 라자팍사는 부활절 테러 이후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나, 국제사회에서 내전 당시 타밀족 민간인을 학살했다는 인권 탄압 의혹을 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소수 집단(타밀족, 이슬람)에 대한 불법 탄압을 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있음.
- 현재 UNP 중심의 연합정당이 의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어 의회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2020년 3월로 예정된 총선 이후 라자팍사 정권의 주요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등이 가능할지 관측됨.

* 현재 정당별 의석 수(225석) 구성 현황: UNP 주도의 통합국민전선(UNFGG) 106석, SLFP 주도의 통합국민자유연합(UPFA) 95석, 타밀민족연맹(TNA) 16석, 국민자유전선(JVP) 6석, 기타 2석

사회동향

부활절 테러 이후에도 종교 간 갈등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4월 21일 발생한 부활절 연쇄 폭탄 테러로 교회, 호텔 등 전국 8곳에서 약 260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에 4월 22일부터 4개월 간 국가비상사태가 시행되었음.
- 테러 배후 세력으로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지목되었으며, 100여명의 용의자 및 관련자가 체포됨. 이후 다수 불교도가 이슬람교도들에 보복(보이콧·폭행)하는 사건들이 발생함.
- 8월 22일 국가비상사태 해제 후 추가 테러 등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非이슬람 교도들과 외국인들이 많은 호텔, 식당, 종교시설 등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추가 테러 및 스리랑카 내 종교 간 갈등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부 당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국제관계

인권 탄압 등의 이유로 미국 및 EU와의 외교·경제관계 경색

- 인권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의 당선은 인권 문제에 민감한 미국 및 EU와의 외교관계뿐 아니라 경제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EU는 내전 시 발생한 인권침해가 UN 결의안 등 국제협약을 위반했다고 판단, 스리랑카에 대한 일반 관세특혜(GSP+) 부여를 취소하였다가 2017년 국제인권협약 이행 노력을 인정하여 GSP+ 지위를 복원한 바 있음.
- 현재 고타바야는 인권 유린 관련 국제사회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내전 당시 범죄 혐의를 받고 구치된 군인들을 석방할 의사가 있다고 공표하는 등 인권문제 개선 노력 부재로 향후 EU 등의 관세 특혜 재박탈 위험이 있음.

* 스리랑카의 수출에서 對미국 비중은 26%, 對EU 비중은 16%(2018년 기준)

중립 외교노선 속 친중 경제협력 관계 지향

- 고타바야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중립 외교노선을 채택할 것이라고 공표하였으나, 전문가들은 마힌다 대통령 재임기간 중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한 점 등을 감안, 라자팍사 형제가 이끄는 신정부 또한 친중국 노선을 재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함.
- 통합민주당(UNP)이 이끄는 정부는 인도와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가 투자하는 다수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나, 라자팍사 정권은 중국 친화적 정책 하에 기 추진 중인 인도 기업의 對스리랑카 투자사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 및 계약에 대한 변경 또는 취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됨.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2019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외채규모는 1,987.4백만 달러(단기 273.4백만 달러, 중장기 1,714.0백만 달러)이며, 연체금액은 없음.
- 2005년 1월 파리클럽은 지진 해일 피해 지원을 위해 스리랑카의 외채원리금 2.3억 달러 상환을 유예한 적이 있으나 스리랑카 정부는 이후 전액 상환하였음.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 (2019.06)	6 (2018.06)
Moody's	B2 (2019.04)	B2 (2018.11)
Fitch	B (2019.10)	B (2018.12)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외부환경에 취약한 스리랑카의 채무상환능력에 우려 표명

- 2018년 11~12월 중 국제신용평가 3사 모두 스리랑카의 정치적 혼란, 높은 외채상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스리랑카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2019년에는 S&P, Moody's, Fitch 3사 모두 '안정적' 수준으로 등급을 유지하였으나, 과도한 공적채무 및 외부환경(투자자 심리 변화, 글로벌 금융시장 위축)에 매우 취약한 채무상환능력 등을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평가함.
- 또한, Moody's는 해외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까다로운 대출조건, 과도한 공적채무 대비 빈약한 수입창출 기반 등을 위험요인으로 분석함.
- 한편, Fitch는 2020~23년 중 도래 예정인 과도한 수준의 외채상환액(190억 달러) 및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 위축이 향후 외채의 리파이낸싱 위험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함.

- 스리랑카 경제는 2018년에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다소 위축된 3.2%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부활절 테러 발생에 따른 관광업 및 관련 산업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인해 2.7%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당초 3.5%에서 하향 조정). 한편,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1%로 전년도(4.3%)에 이어 4%대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함반토타 지역의 2건의 대규모 정유 공장 건설 사업은 스리랑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 2018년 말 발생한 헌정위기는 스리랑카 대법원이 시리세나 전 대통령의 라닐 위크레메싱게 총리 해임 및 신임 총리(마힌다 라자팍사)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의회 해산을 위헌으로 판결하며 일단락되었으나, 2019년 11월 출범한 스리랑카인민전선의 고타바야 라자팍사 정권은 의회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통합국민당이 이끄는 연합정당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2020년 3월 총선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한편, 내전 당시 인권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라자팍사 형제의 인권 유린 관련 국제사회 조사 거부 등의 태도는 향후 미국 및 EU와의 외교·경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총외채는 2018년 523억 달러(GDP의 58.8%)에서 2019년 562억 달러(예상)로, D.S.R.은 2016~17년 15%에서 2018~19년 21%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신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IMF 경제구조 개혁 프로그램의 재정건전화 방안과 상충되는 조세 감면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적자는 더욱 확대되고 외채상환능력은 악화될 우려가 있음.